

# 18일 민주묘지행 518번 버스 증차...배차 간격도 단축

## 광주시, 5·18기념주간 특별교통대책

### 내일부터 금남로 행사장 단계별 통제 주요 진입로 불법 주·정차 집중 관리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년을 맞아 시민과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심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요 행사가 집중되는 금남로 일대와 참배객이 몰리는 국립5·18민주묘지 인근을 중심으로 단계별 교통통제와 맞춤형 수송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기념행사의 주 무대인 금남로 구간(금남공원~5·18민주광장)은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15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전 차선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19개 시내버스 노선은 인근 도로로 우회 운행하며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16일 오후에는 '런(RUN) 5·18 도청가는 길'과 '민주평화대행진' 행사로 인해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역을 거쳐 5·18민주광장에 이르는 구간이 시간대별로 부분 통제된다.

이에 따라 좌석02번과 진월07번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을 지나는 나머지 43개 노선은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차 후 서행 운행한다.

참배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8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행 518번 시내버스를

기존 10대에서 12대로 증차한다.

또 운행 횟수를 70회로 늘리고 배차 간격을 20~30분으로 단축해 참배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23일 '5·18청소년문화제'가 열리는 금남로 구간(금남로공원-전일빌딩245)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통제한다. 이날 이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모두 우회 운행한다.

광주시는 행사 기간 동구, 북구,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민주묘지 주변과 금남로 일대에는 안내 인력과 견인차를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예정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과 원활한 교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심 곳곳에서 통제가 예정돼 있으니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회 노선을 사전에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황기연 행정부지사와 강위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실·국장들이 13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반려동물 문화나들이 특별주간 운영

### 19-24일 전시회·산책교육 프로그램

광주시는 13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사 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을 위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주간' 을 오는 19-24일 6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시민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시립미 술관 본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리는 '2026 민주 인권평화전-강요배·시간이 되는 풍경'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동반 관람은 반려동물이 개별 이동장 또는 반 려동물 전용 유모차에 탑승해야 가능하며 배변 패드 지킴은 필수다.

광주시는 전용 유모차와 배변패드를 현장에

서 지원해 관람객의 편의를 높인다. 또 미술관 1 층 로비 입구에 명예동물보호관을 배치해 안전 한 동반 관람과 펫티켓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 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맹견을 비롯해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이 있는 반려견의 출입은 제한된다.

시립미술관 야외 잔디광장에서는 23-24일 이 틀간 '반려견 산책교육 원데이 실전 코칭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산책교육은 펫티켓 교육과 문제행동 상담, 산책교육 실습 등 실전 중심으 로 구성했으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루 4 회, 회당 10명 규모로 진행한다. /변은진 기자

## 전남농기원 개발 '수국' 고향국제꽃박람회 3관왕

### '핑크유' 등 자체 개발 6개 품종 첫 출품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3일 "자체 개발한 수국 '핑크유(Pink U·사진)' 등 6개 품종을 최근 열린 고향국제꽃박람회 국내 화훼 신품종 전시관에 출품해 화훼 신품종 콘테스트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자체 개발 수국이 고향국제꽃박람회 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은 수국 '핑크유(Pink U)'는 화려한 프릴 형태와 꽃잎과 짙은 분홍색 이 특징이며 키가 작고 잎이 둥글어 관상 가치 가 높다.

국립종자원장상을 수상한 '핑크아리(Pink Ari)'는 저온요구도가 낮고 개화 시기가 빠르며 꽃송이가 많아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받은 '모닝스타(Morning Star)'는 산성 토양에서 화색 변화가 뛰어나 개



끗하고 맑은 하늘색 꽃을 피우는 대형 품종으 로, 절화용으로 인기가 높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고양국제꽃 박람회와 같은 큰 행사를 통해 국산 화훼 품종 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남에서 개발한 화훼 신품종이 해외시장에도 진출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대한다"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 품종을 지속 개발하고 국산 품종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여수 해상교량 달리는 '기부런' 관심 집중

### 1천명 선착순 접수...참가비 공익사업 활용 여수섬박람회 입장권도 전원 제공 '1석2조'

전남도는 13일 "오는 30일 여수 남도 일원 해 상교량에서 개최되는 '기부런(RUN FOR ISL AND)'이 참가자 1천여명 모집을 목표로 한 가 운데 전국 러닝크루 등 참가 신청이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참가자 상당수는 서울·경기 등 수 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러닝 크루로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와 입소문을 기반으로 전국 각 지로 참여가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날 현 재 참가 신청자는 400명을 돌파했다.

기부런은 단순한 마라톤 대회를 넘어 '달리 며 기부하는 공익형 스포츠 이벤트'다. 참가 비 3만원의 50%를 섬 지역 주민복지 및 공익 사업에 활용하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 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 여수세계섬박람회 입 장권이 제공돼 관광과 나눔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행사는 여수 남도대교와 둔병대교를 잇는 해상교량 약 10km 구간에서 펼쳐지며 바다 위 를 달리는 이색적인 경험과 퍼포먼스형 프로 그램이 어우러진 '펀런(Fun-Run)' 형태로 운 영된다. 기록 경쟁보다는 기부와 참여의 의미 를 되새기며 함께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참가 신청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교통 통제, 의료 지원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 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 다.

기부런 참가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여수 기 부런'을 검색하거나 공식 온라인 채널(runforis lands.com)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오미경 관광과장은 "기부런은 섬 관광과 기 부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남의 섬이 단순히 방문하는 관광지를 넘어 머무르고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도 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 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광주교통문화연구소가

#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킵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